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 의 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 방문 인터뷰
- **문 의 처** : ☎ 02) 721-1825

※ 피해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2021년 7월호
Vol.20

새탄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2021년 7월호 **VOL. 20**

FoMo
Forced Mobilization

이슈
03 6년을 기다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역사관 이슈
06 넌 역사관에서 뛰어 놀 때가 제일 예뻐
08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라
10 역사관 유물들의 서울 나들이

강제동원을 말하다
11 역사관 홍보 카드뉴스

소장 유물 소개
12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명부 복원

온라인 전시
14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우리 동네 일제강제동원유적 탐방3
16 부산시민의 휴식공간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방문기
18 호국보훈의 달 소중한 가족과 함께
19 일제강점기 고통, 끝난 것이 아니다

화해와 연대
20 타이완 '할머니의 집 - 평화와 여성인권 박물관'

역사관 사용설명서
21 2021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 2021년도 'FoMo 학당'
22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23 역사관 캐릭터 '포모'와 함께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포모가 달라졌습니다 강제동원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포모가 새로워졌습니다. 보다 쉽고 친근한, 하지만 가볍지 않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워진 포모는 이제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포모는 소식지와 이름이 같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캐릭터 '포모'는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실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7월 1일 통권 제20호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 **디자인** ㈜광장A&C 051-583-8722 |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 051-629-8600 **F** 051-629-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6년을 기다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10.30. 선고2013다61381 판결)

대법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판결 (2021.6.7. 선고2015가합13718 판결)

"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85명이 일본의 스미세키홀딩스(전 스미토모 광업),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닛산화학 등 16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로,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청구권의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는 상반된 것이다.

판결의 요지는 "1.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법해석이며, 국내법으로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한일 청구권협정(1962)>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제한된다." 라는 것이다.

8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5년 손배소를 제기한 후 6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첫 변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정된 선고일보다 3일이나 빨리 기습적으로 진행된 도둑 선고의 결과는 결국 '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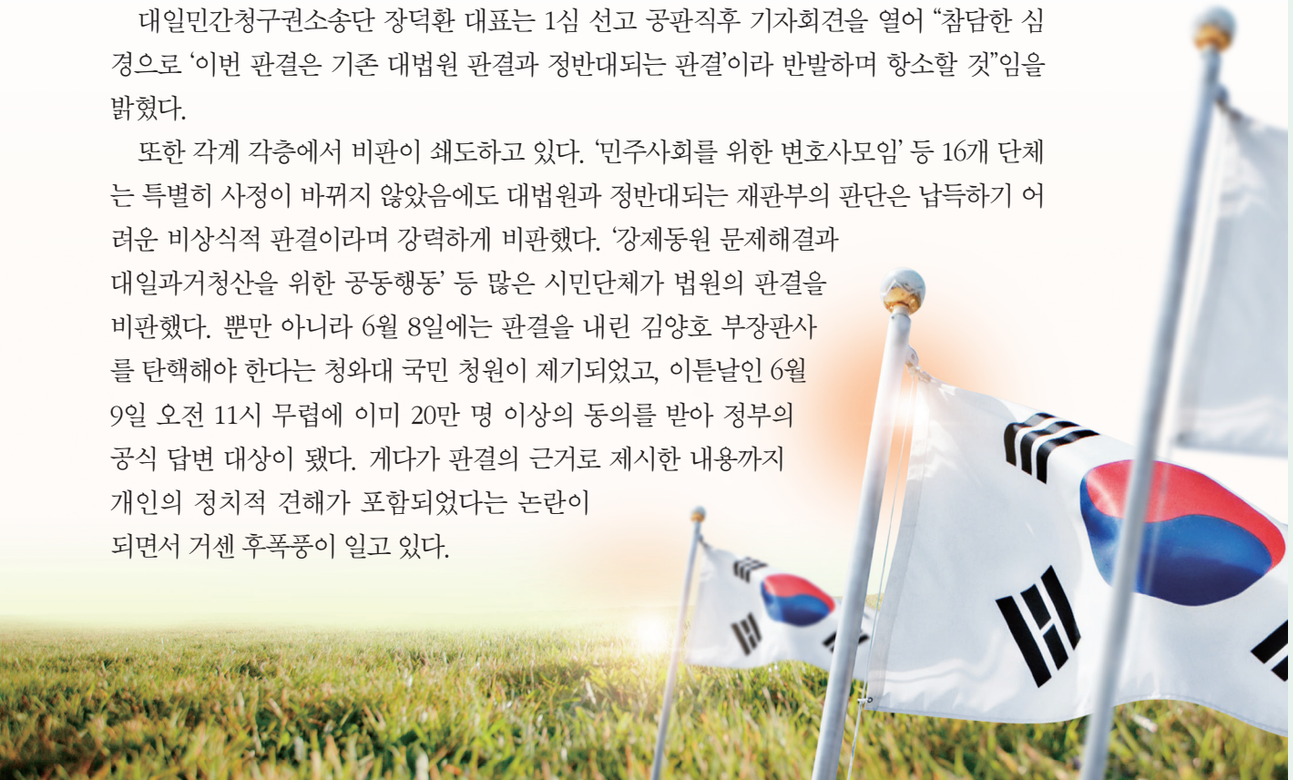
2018년 대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결에 거센 비판 이어져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6월 14일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출처-연합뉴스)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경으로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이라 반발하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각계 각층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6개 단체는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대법원과 정반대되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많은 시민단체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6월 8일에는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되었고, 이튿날인 6월 9일 오전 11시 무렵에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게다가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까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포함되었다는 논란이 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제 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소송 주요 일지

1965년 6월 22일	**정부, 일본정부와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
1997년 12월 24일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01년 3월 27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2002년 11월 19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2005년 2월 28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8월 26일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원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운택 할아버지 등 패소 판결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일본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2015년 5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명 일본기업 16곳 상대로 최대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초 원고 86명, 피고 17곳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일부 취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 승소 판결 확정.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2021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일본 기업들에 공시 송달 결정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소송대리인 선임한 점 고려해 공시송달 취소 결정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1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 지정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각하' 판결**

출처 - 연합뉴스

글 | **편집부**

넌 역사관에서 뛰어놀 때가 제일 예뻐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역사관에서는 강제동원 주제 인형극 상연, 3D 프린팅 소녀상과 포모 캐릭터 마스크 스트랩 무료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날 역사관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등 4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 | 역사관 **장민성**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라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 슈헤이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년”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회의가 지난 5월 12일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 주최, 부산지방보훈청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학술회의에서는 ‘의열단운동과 부산(김영범·대구대 명예교수)’,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의 의미와 효과(이동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의열단에서 활약한 여성독립운동가(최명숙·부산외대 명예교수)’ 등 3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각 발표에 대해 홍순권 동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준설 의열기념관 학예사, 노상만 개성고역사관장, 최정혜 임시수도기념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재혁 의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 9월14일 하시모토슈헤이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박 의사는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혹독한 고문에 폐병까지 얻게 되었지만 “왜놈 손에 죽기 싫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단식하여 1921년 5월 11일 순국하였다. 올해는 박 의사가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5월 11일 추모제(부산 어린이대공원에서 거행)와 12일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박재혁의 후예들, 역사관 방문하다

지난 6월 8일 박 의사의 모교인 부산진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역사관을 찾았다. 학생들은 전시관람과 체험학습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강제동원의 아픔을 가슴에 새겼다.



이은후

다코베야에서 이루어진 학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가장 가슴아프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에요.



박태현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먼일같아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하지만 역사관을
관람하며 안타까움의 감정이 불타오르는 느낌을 받았고,
아직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크면 그 사과를 꼭 받아내고 싶어요.



천예원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됐어요.
일제의 만행에 무서움을 느꼈고,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 한번 와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정보경

우리 또래 아이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분하고 슬퍼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글 | **편집부**

역사관 유물들의 서울나들이

“다양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강제징용의 미시사”

서울시립미술관과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있지만 없었던 NAMING THE NAMELESS’ 전시가 지난 6월 6일 막을 내렸다. 4월 30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에서 개최된 전시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일제강제동원의 아픔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까지도 살펴 보았다. 이번 전시에는 역사관에서 제공한 220여 점
의 사진과 12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다.

*아카이브 : 정보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놓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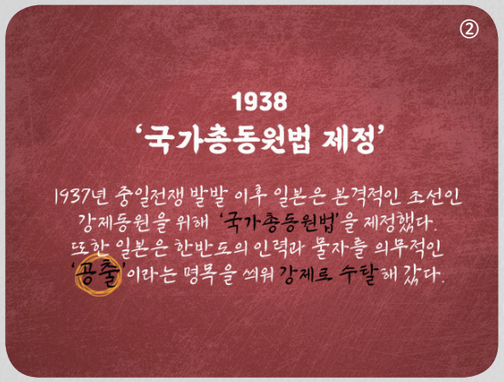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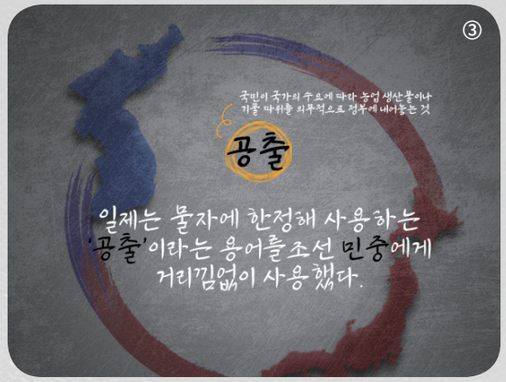
강제동원을 단순화시키기보다, 일상사를 통해 강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일상과 세계를 전유하며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나 가장 많은 수가 징용되었던 탄광 노동자들의 모습들로부터 출발해 역사관에서 자료제공한 ‘윤병렬 컬렉션’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을 실물자료로 선보였다. 나아가 다양한 노역에 강제동원되었던 실제 노동자들의 얼굴과 수신자를 잃은 편지, 노동자의 가족들이 영상을 통해 남긴 생생한 목소리, 이국 만리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의 묘비 등을 통해 남긴 생생한 목소리, 이국만리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의 묘비 등을 통해 강제노동자들의 일상과 노스텔지어를 드러냈다.

- 전시 안내문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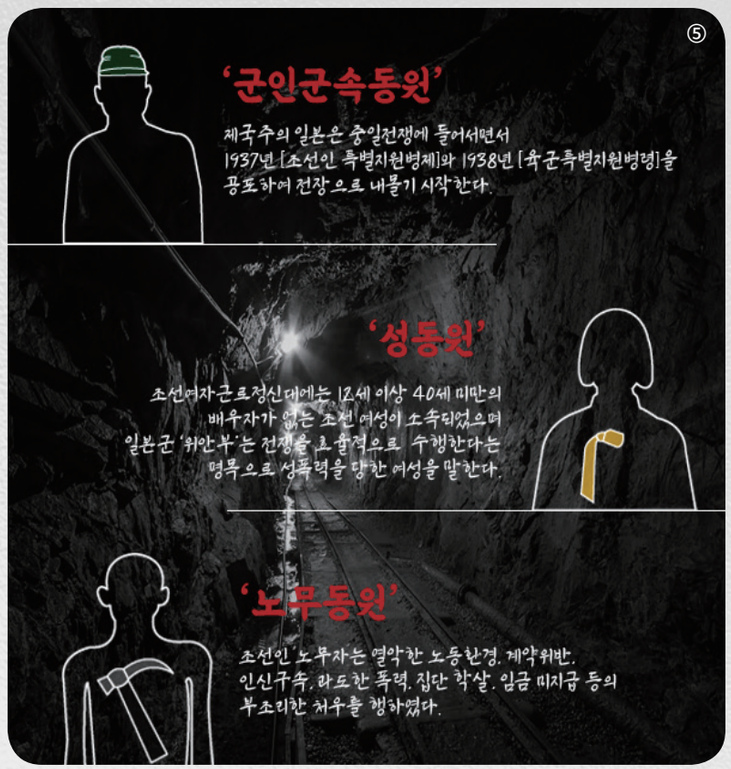
글 | **편집부**











해당 게시물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IMC 1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명부* 복원

2020년 역사관 소장 명부의 상태점검 결과, 훼손 또는 열화*가 우려되는 명부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복원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일제 강제동원 명부 DB구축 및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상태와 열화 정도에 따라 응급복원을 실시하였다. 응급복원은 단기간 최소한의 보강처리라고 할 수 있다.

* 명부 : 특정 업무에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놓은 장부
* 열화 : 내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으로 산성화, 변색, 탈색, 찢김, 바스라짐 등이 있다.

[응급 복원 과정]

1 저산소 살충소독 ▸▸ 2 상태조사 ▸▸ 3 건 · 습식세척 ▸▸ 4 처리 전 pH측정 ▸▸ 5 응급 복원처리 ▸▸ 6 탈산제 직접분사 ▸▸ 7 처리 후 pH측정 ▸▸ 8 기록물 보존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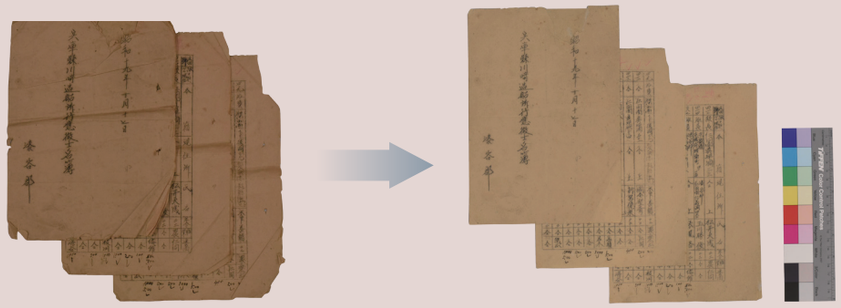
가와사키조선소행 응징사명부川崎造船所行應徵士名簿는 저산소 살충 소독 후 산화된 종이를 중성화하기 위하여 약제를 분사하여 탈산처리하였다. 상태별로 건식 또는 습식 세척한 뒤, 구김이나 찢김은 띠지 또는 전면 보강배접하였다. 해남도남부지구교민통리위원회명부 등은 개별 분리하고 재선장하여 보존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관 소장 명부는 응급 복원 조치에 따라 산성도를 일부 중화시켜 재질적으로 안정화하였고, 본래의 형태를 되찾거나 보다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부의 보존기간 연장과 활용 역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2020년 역사관 소장 명부 복원은 소장유물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업무 협력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정화된 명부는 DB 구축을 위한 스캐닝 작업을 거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상설 전시 중이다.

※ 역사관 소장 명부 복원에 도움을 주신 분 :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최현욱 주무관님, 기록실무원 김다듬·정다희 선생님

[보존처리를 마치고 돌아온 유물들]

가와사키조선소행 응징사명부川崎造船所行應徵士名簿는 1944년 10월 일본 효고兵庫현 가와사키川崎조선소로 징용된 40명의 번호를 비롯해 직위·본적·현주소·성명·연령·직업 등이 기재된 명부이다. 칠곡군청은 칠곡에서 징용된 사람들 중 일본어가 가장 능숙했던 박경호를 징용노무자 대장隊長으로 임명하고, 이 명부를 통해 현장근무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 처리 전 ▸ 처리 후

해남도남부지구海南島南部地區 한국교민통리위원회 명부韓國僑民統理委員會名簿 등 6종은 기증자 김학섭님의 부친께서 해방 3년 후인 1948년 중국 광저우广州에서 가져오신 명부이다. 해남도남부지구 한국교민통리위원회 명부, 해남도해구대한교민회임원일람표, 대원귀향지조서 남해도남구 한적군인속 자영대 명부, 광주시한교협회 회원명부, 광주시대한교민회 회원명부, 군사위원회위원장광주행영 한적사병집훈총대명부 등이다. 이들은 합본 상태로 보관해 오던 것을 분철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 처리 전 ▸ 처리 후

글 | 역사관 **안송이**

66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99

안세홍 작가 초청 전시
일본군'위안부'는 전쟁이 남긴 인권 문제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과 식민지 조선, 타이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연안 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위안소로 강제동원 되어 성노예가 되어야만 했다.
동원된 여성들 중에 일본의 주장과 같이 일본군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
스스로 전쟁터로 간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任兰娥
REN Lan-e
(B. 1931-2016 / in Sanxi, China),
Drafted year: 1944, 13y/o, for 15 days + 2 months(2times)

런란이 (중국)
1944년, 13세의 나이로
15일, 2달 두 번의 고초를 겪었다.



Dayi
(B. Estimated at 1925 /
in Sulawesi, Indonesia),
Drafted year: 1945,
20y/o estimates, for 6 months

다이 (인도네시아)
1945년, 20세의 나이로
6개월간 고초를 겪었다.

끌려감, 감금, 성폭력, 버려짐.
모든 것은 70~8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나라와 나이, 동원 방법과 기간 등의 피해 사례로만 그녀들의 아픔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야기한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한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녀들은 성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가해국인 일본은 물론 피해국조차 피해자 조사,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문제해결 또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글 | 사진 **안세홍**

부산시민의 휴식공간 부산시민공원

“일제강점기 경마장 - 일본군 군용지 - 미군 캠프 하야리아의 기억과 아픔”



01

포켓○고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포켓스톱’이 많은 곳, 글로벌 아이돌 BTS의 뷔가 방문한 곳으로 유명한 부산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했다. 뷔가 방문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뷔와 같은 장소, 같은 포즈(방문일은 해가 쨍쨍했음에도 우산을 들고 있었다!)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BTS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며, 넓고 푸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 잠시나마 코로나19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사실 부산시민공원은 필자가 대학에 다닐 무렵까지도 미군의 캠프 하야리아가 있던 곳이라 미군 주둔지라고만 생각했고, 공원역사관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역사가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부산시민공원은 1930년 일본 중산층을 위한 위락시설인 ‘서면경마장’으로 개장하여,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기마부대가 주둔하게 되고 1942~1945년에는 임시군속교육대*도 설치되었다. 임시군속교육대는 부대장인 노구치 유주르의 이름을 따서 ‘노구치부대’라고도 불렸고 이들은 일본군 장교들에게 연합군 포로를 감시할 포로감시원으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소설가인 시바 료타로의 ‘가이토오 유쿠’에서 그가 만주에서 탱크 3대를 열차에 실어 이송했다는 부산 서면의 ‘노구치부대’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부산이 만주까지 철도로 이어져 일제 말기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로 군사력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원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 관련 내용은 아주 적은 분량이었지만, 미처 알지 못하던 커다란 역사였다. 공원역사관을 나올 때 다시 만나게 된 쨍한 햇살과 푸른 잔디를 보며 문득 십수년전 군생활이 떠올랐다. 그시절에는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는 군가처럼 책임감과 보람이 있었다. 아마도 그 또래였을 80년 전 포로감시원들은 보람은 커녕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해 보았다.

일제는 1941년 말 이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잇따라 점령하면서 25~30만 명에 이르는 연합군 포로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조선인 3,000여 명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포로감시원으로 파견한다. 당시 조선인들은 포로감시 관련 국제협정을 배우기는커녕, 구타 등 가혹행위만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인 포로감시원 129명은 일본의 강압적인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연합군 군인들로부터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받아 B급, 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14명은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129명 모두 현재의 부산시민공원 자리에 설치된 임시군속교육대인 노구치부대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속이란 군에 동원된 민간인으로, 63,000명 이상이 포로감시원이나 운전수, 간호부 등으로 동원됐다.

글 | **편집부**

01 02 부산시민공원 **03 04** 공원역사관과 일제강점기 포로감시원 관련 전시



02



03



04

호국보훈의 달 소중한 가족과 함께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동화구연 인형극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역사관 관람도 할겸 마실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처음 방문인데 건물도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유엔평화기념관을 비롯해 당곡공원 무궁화동산과 문수사 등 볼거리가 다양한 곳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층에는 강제동원을 주제로 구성한 그림자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는 울림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설전시실이 있는 4층으로 이동합니다. 상설전시실 1관은 기억의 터널부터 시작합니다. 일제강제동원으로 헤어진 한 가족의 슬픈 사연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태국-버마철도〉 특별기획전시도 진행 중입니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철도인데 총 24만 명의 노무자가 동원되어 10만 명이 희생된 죽음의 철도공사였다고 합니다. 4층에서 5층으로 가는 계단 벽면에는 피해자들이 기증한 수많은 사진들이 그 때의 참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5층의 상설전시관2관에는 탄광과 일본군 위안소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탄광에서의 가혹했던 노동으로 몸성히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귀환할 때도 일본이 책임지지 않아서 스스로 귀환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7층에는 어린이체험관과 다독다독 도서관 그리고 하늘공원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관에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조성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사전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강제동원 동화구연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층 출입문에서 하늘공원으로 나가면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모탑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비상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움이 있기까지 우리나라가 겪어온 슬프고 참혹했던 근대사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글·사진 | 블로거 **홍현옥**

일제강점기 고통, 끝난 것이 아니다



첫 방문은 2019년, 대학교 과에서 참가하던 스터디를 통해서였습니다. 사학과에 재학중이라 역사와 관련한 스터디를 하면서 부산의 여러 박물관과 역사관을 다니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매년 한 번씩은 꼭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대외활동(부산지방보훈청 온라인 기자단)을 하면서 역사관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옛날, 그저 역사의 일부분으로만 느껴지고 실제로 와닿지는 않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관을 방문해서 일제강점기 우리의 피해와 실제 피해자분들의 음성, 자료 등을 보며 조금이나마 당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역사관에는 피해자의 음성과 기록물, 다양한 영상자료와 강제징용 현장인 탄광이나 노무자 숙소 등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여러 전시가 제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이렇게 아무 걱정없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내 또래의 친구들이 강제로 끌려간 사연들을 보며 고통을 잊어버린채 살았던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이런 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존하는 전범기업들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싸우시는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시는 한 일제강점기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며 끊임없는 관심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글·사진 | 블로거 **최지원**

역사관 방문기 참여안내 역사관을 방문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타이완 '할머니의 집 - 평화와 여성인권 박물관'

시민의 손으로 살려낸 타이완 '위안부'인권 운동 기지







01 2019년 이용수 할머니(왼쪽에서 두 번째)가 타이완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02 03** '할머니의 집' 내부 전시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의 '할머니의 집-평화와 여성인권 박물관'(阿嬤家, AMA museum)은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9명의 삶을 담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다.

'할머니'를 뜻하는 阿嬤의 음을 따서 아마(AMA)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곳은 부녀 구원사회복리사업 기금회의 주도 하에 2016년 12월 개관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료와 영상, 서적류 5,000여 건과 박물류 730건을 보유 중이며 타이완 최초의 '위안부' 인권 운동 기지이기도 하다. 타이완의 정부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는 일본군'위안부'를 알리기 위해 전시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영향을 받아 인권 운동,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비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낮고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의식한 타이완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최근 1천여 명의 시민이 기탁한 성금으로 타이베이시 대동구 대동 국민소학교 인근으로 이전하여 재개관을 준비 중에 있다.

글 | **편집부**

2021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

< 세부 일정 >

제1강	자산과 다산, 유배지의 형제들	김문기	7. 10.(토) 14:00~16:00	50명
제2강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강대민	8. 14.(토) 14:00~16:00	50명
제3강	일본인 공동묘지와 한국전쟁 피란민	차철욱	9. 11.(토) 14:00~16:00	50명
제4강	일제의 침략전쟁과 제노사이드	홍순권	10. 9.(토) 14:00~16:00	50명
제5강	부산의 길과 지역정신	박창희	11. 13.(토) 14:00~16:00	50명

• **대상** : 일반 시민 • **신청 기간** : 정원 마감 시까지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사전 접수 (051-629-8633, 863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사관대학 'FoMo 학당'

부산의 일제강점기

2021학년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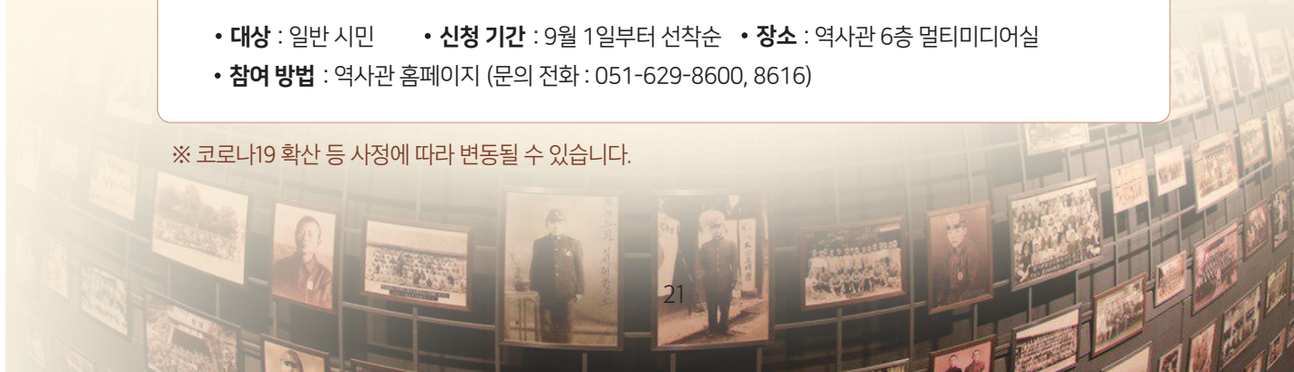
< 세부 일정 >

강연자	소속	주제	강연일
이가연	부경대 사학과	일제시기 부산 이주 일본인 상공업자	10. 6.(수)
김민화	부산대 사학과	근대도시 부산의 경제인 네트워크	10. 13.(수)
고나은	부산대 사학과	동원된 개발: 개발재난과 구제동원	10. 20.(수)
전성현	동아대 석당학술원	근대적 일상과 부산의 도시문화	10. 27.(수)
선우성혜	동의대 사학과	일제강점기 동래 지역 조선인 경제인의 사회 경제활동	11. 3.(수)
신정윤	부산대 사학과	일제 말 부산 부랑아의 강제동원	11. 10.(수)
서만일	동아대 사학과	한국전쟁과 부산항	11. 17.(수)
박경연	부산대 사학과	부산 천주교의 구호사업	11. 24.(수)

• **대상** : 일반 시민 • **신청 기간** : 9월 1일부터 선착순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문의 전화 : 051-629-8600, 8616)

※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 (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역사관의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울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역사관 캐릭터 '포모'와 함께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역사관 어린이체험관에서 인형극을 상연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역사관 7층 어린이체험관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나 역사관 대표 메일(museum@fomo.or.kr)
혹은 역사관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기부 팔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기부 팔찌

손멋을 아는 공방 시노테는 수익의 일부를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